

보도자료

발표 시점 : 2011년 2월 14일 (월)

보도 시점 : 즉시

제목 : HRI 한반도 평화지수

-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 공동으로 2010년 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 한반도 평화지수, 남북 관계 긴장 상태 지속

< 연락처 >

통일경제센터

홍 순 직 수석연구원 (2072-6221, sjhong@hri.co.kr)

이 해 정 선임연구원 (2072-6222, hjlee@hri.co.kr)

HRI 한반도 평화지수

한반도 평화지수, 남북 관계 긴장 상태 지속

2011. 2

목 차

■ 한반도 평화지수, 남북 관계 긴장 상태 지속

I. 2010-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1
II. 남북 관계 현안 설문 조사 결과	7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 개요	12
< 부록 2 > 교류지수 주요 변수	13
< 부록 3 > 남북 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14

Executive Summary

□ 한반도 평화지수, 남북 관계 긴장 상태 지속

(종합 평가) 2010년 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등으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어 천안함 침몰 발발 직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 대비 16.9p 하락한 25.0을 기록함으로써, 3분기에 다소 완화되었던 남북 관계는 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 수준으로 재고조되어 여전히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4분기의 기대지수도 지난 분기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반전함으로써 전문가들의 2011년 1분기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도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대지수는 4분기 평화지수보다 11.5p 높은 36.5를 기록하여 2011년 1분기 남북 관계는 현재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문가들이 최근 북한의 대화 제의 공세와 미중 정상회담 결과 등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특징) 2010년 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를 조사한 결과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전문가들이 느끼는 주관적 평가가 각종 사건·사고와 교류협력 등의 실적에 기초한 객관적 평가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는 29.8에서 34.5로 상승한 반면, 전문가들의 인식과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전문가평가지수는 지난 분기 30.4에서 15.4로 '긴장 고조' 상태에서 '전시 및 준전시' 상태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 남북협력사업 승인 등에 따라 객관적 실적치는 상승한 반면,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시설 공개 압박, 남북 당국간 회담 중단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전문가들이 느끼는 남북 관계 인식은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주관적 평가에 있어서 2011년 1분기 기대지수 하락폭은 2010년 4분기 전문가평가지수 하락폭보다 작아, 전문가들의 미래 불안감은 현실보다 다소 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로 항목별로는 정량분석지수에 있어서 정치·군사 분야의 이벤트지수는 소폭 하락한 반면, 경제·사회문화 및 인도적 지원 분야의 교류지수는 크게 개선되었다. 이벤트지수는 연평도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승호 선원 귀환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중국의 6자회담대표 긴급 협의 제안 등으로 지난 분기 34.9에서 32.8로 2.1p 하락에 그쳤다. 반면 교류지수는 연평도 도발 이전의 대북 수해 복구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 실적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쳐 24.6에서 36.2로 11.6p나 증가했다. 그러나 교류지수 역시 개성공단을 제외한 전면적인 교역 중단을 선언한 5.24 조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진 못했다.

셋째, 성향별 평가에 있어서는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이 가장 큰 폭 하락하고 낮은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현 상황을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진보적 성향의 전문가평가지수는 8.9로 대폭 하락하여 보수적 성향의 15.0보다 크게 낮았고, 양자간의 격차도 지난 분기 4.2p에서 6.1p로 확대되었다. 이는 연평도 도발에 따른 남북 양측의 강경 맞대응으로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등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11년 1분기에 대한 기대지수는 성향에 관계없이 현재의 전문가평가지수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최근 북한의 대화 제의와 미중 등의 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남북 관계 전망과 과제) 향후 남북 관계 및 북핵 문제 해결 전망은 여전히 불안 요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정세·경색 국면이 유지되거나(45.2%) 점차 대화 국면으로의 진전(48.4%)을 기대하였다. 6자회담에 대해서는 상당수 전문가(61.3%)들이 상반기 내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남북 경색 장기화에 대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성향별로 다소 차이가 났는데,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은 '남북 경색이 단기와 중장기에 걸쳐 영향이 심할 것'(73.3%)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반면, 보수 성향은 '중장기 영향이 별로 없을 것'(65.2%)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대북 정책 방향에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69.4%)이 6자회담 재개와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별도 추진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연평도 도발과는 관계없이 조속한 관계 개선을 주문한 응답자(6.5%)도 소수 존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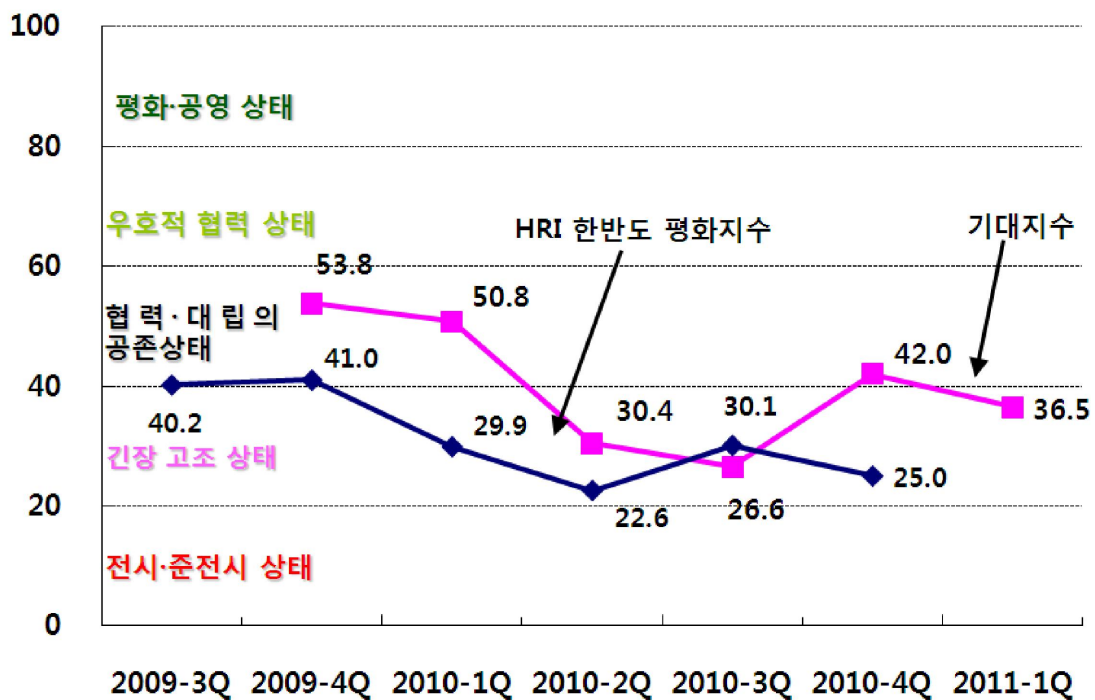
북핵 해결책으로는 상당수의 전문가들(63.9%)들이 '先 6자회담 재개, 後 북한 변화 유도'를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북한의 핵연료봉 이전과 판매 등 최소한의 안전 장치 마련을 전제로 핵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비율도 23%나 달했다. 또한 적극적인 역할 주체에 있어서는 남한(36.1%), 미국(24.6%), 중국(21.3%), 6자 공조틀(18.0%)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 관계 개선 방안으로 정치·군사 분야에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의 정례화와 대중 외교 강화를 통한 북한 변화 유도, 남북정상회담과 조속한 6자회담 재개 등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화 재개 노력을 강조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협법·제도화와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남북 교류 확대 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외에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쌀·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을 통한 상호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1. 2010-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종합 평가) 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 등으로 남북 관계 긴장이 고조됨으로써 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 수준으로 회귀
- 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25.0을 기록하여, 3분기에 다소 완화되었던 남북 간 긴장 관계가 재차 고조된 것으로 나타남
 - 3분기 30.1을 기록했던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 대비 16.9p 하락한 25.0을 나타냄으로써 2010년 2분기의 천안함 사건 이후 최저치를 기록
- 기대지수도 지난 분기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반전함으로써 전문가들의 2011년 1분기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도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1분기 기대지수는 36.5로 나타나 남북 관계는 당분간 '긴장 고조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나, 천안함 사건 직후보다는 다소 덜 비관적임

< 2009~2010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추이 >



- (특징 분석)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는 소폭 상승한 반면, 전문가평가 지수와 기대지수는 하락함으로써, 주관적 평가가 객관적 평가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15.4, 정량분석지수는 34.5를 기록함으로써 남북 관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간에는 큰 괴리가 존재
 - 이는 지난 분기 30.4를 기록했던 전문가평가지수가 4분기에 15.0p 하락한 반면, 경제·사회 영역의 교류지수가 24.6에서 36.2로 큰 폭 상승했기 때문임
 - 특히,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간의 수치 격차가 역전·확대됨으로써, 전문가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남북 관계 체감 지수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평가
 - 하락폭에 있어서 주관적 평가인 전문가평가지수가 실적치인 정량분석지수보다 크게 나타나,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실제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
 -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사이의 격차(전문가평가지수 - 정량분석지수)는 3분기 5.8p → 4분기 -19.1p로 대폭 확대
 - 그러나 주관적 평가에 있어서, 기대지수 하락폭이 2010년 4분기의 전문가평가 지수 하락폭보다 작아, 전문가들의 미래 불안감은 현실보다는 다소 덜함
 - 이는 북한이 신년들어 공동사설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 조평통 대변인 담화, 인민무력부장의 남북고위급 군사회담 제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대남 대화를 제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

< 2009~2010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구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정량분석지수	이벤트지수	교류지수		
'10-4분기	25.0 (▽5.1)	15.4 (▽15.0)	34.5 (▲4.7)	32.8 (▽2.1)	36.2 (▲11.6)	36.5 (▽5.5)
'10-3분기	30.1 (▲7.5)	30.4 (▲19.5)	29.8 (▽4.6)	34.9 (▲1.6)	24.6 (▽10.8)	42.0 (▲15.4)
'10-2분기	22.6 (▽7.3)	10.9 (▽5.6)	34.4 (▽8.9)	33.3 (▽9.5)	35.4 (▽8.4)	26.6 (▽3.8)
'10-1분기	29.9 (▽11.1)	16.5 (▽17.0)	43.3 (▽5.2)	42.8 (▽6.5)	43.8 (▽3.9)	30.4 (▽20.4)
'09-4분기	41.0 (▲0.8)	33.5 (▽7.0)	48.5 (▲8.7)	49.3 (▲1.2)	47.7 (▲16.2)	50.8 (▽3.0)
'09-3분기	40.2	40.5	39.8	48.1	31.5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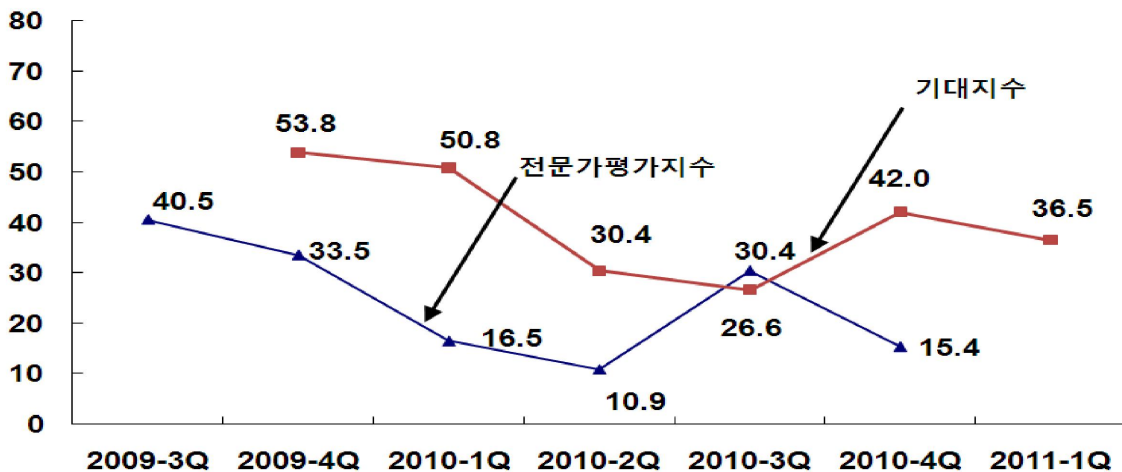
주 : ()내는 지난 분기 대비 증감을 표시(p)

○ (항목별 평가) 연평도 도발 등 남북간 긴장 고조로 전문가평가지수는 '전시 및 준전시' 상황으로 악화됐으나, 교류지수는 오히려 크게 개선

(1) 전문가평가지수 (2010년 3분기 : 30.4 → 2010년 4분기 : 15.4)

- 총 63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남북 관계에 대한 평가는 지난 분기의 '긴장 고조 상태'에서 '전시 및 준전시 상태'로 악화
 - 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15.0p 하락한 15.4로 대폭 하락함으로써, 천안함 피격 사건을 전후한 수준으로 긴장이 다시 고조
 - 이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남북 당국간 회담 및 6자회담 중단이 장기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시설 공개 압박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기대지수도 전기 대비 5.5p 하락한 36.5를 기록했으나, 전문가들은 2011년 1분기의 남북 관계가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
 - 기대지수 하락은 정부가 북한의 진정성 확인 전까지는 남북 및 6자대화 재개 불가라는 강경 입장에 대해, 북한도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 등을 거부하면서 남북 대립 구도가 단기간 내 해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
 - 다만, 2011년 1분기 기대지수가 2010년 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보다 높고, 하락 폭도 낮은 것은 최근의 남북대화 재개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
 - 즉, 신년 들어 북한이 계속 대남 대화를 제의하고 있고,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화 제의를 남한이 수용함에 따라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가 반영

< 2009~2010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의 추이 >



(2) 정량분석지수 (2010년 3분기 : 29.8 → 2010년 4분기 : 34.5)

- 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29.8보다 4.7p 상승한 34.5를 기록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객관적 실적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정량분석지수 상승은 정치·군사 부문의 '이벤트 지수'의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인도적 지원 부문의 '교류 지수'가 큰 폭 상승했기 때문
- 이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UEP 시설 공개 등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북 수해 복구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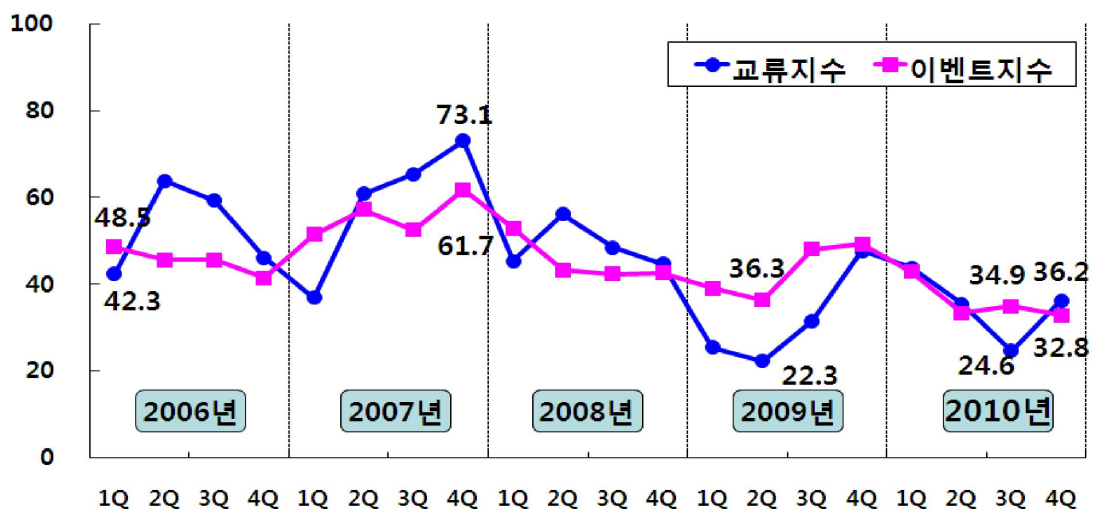
① 이벤트지수 (2010년 3분기 : 34.9 → 2010년 4분기 : 32.8)

- 이벤트지수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UEP 시설 공개 등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황 악화로 진행되지는 않았음
- 이는 북한의 대승호 선원 귀환과 이산가족 상봉, 중국의 6자회담대표 긴급 협의 제안,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북 수해 지원과 군사적 대응 자제 등에 기인

② 교류지수 (2010년 3분기 : 24.6 → 2010년 4분기 : 36.2)

- 교류지수는 전기 대비 11.6p 상승한 36.2를 기록하였으나,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 2분기(35.4)와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렀음
- 교류지수 상승은 연평도 도발 이전의 남북협력사업 승인 건수와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등이 반영된 것이나, 남북교역액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전면적인 교역 중단의 5.24 조치 여파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에 그침

< 2006~2010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주 : 이벤트지수는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를, 교류지수는 경제·사회·인도지원 분야의 변화를 표시

- (성향별 분석) 전문가들의 남북 관계 평가가 모두 지난 분기에 비해 크게 악화되었으며, 특히 진보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가장 많이 하락
 -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각각 15.0, 25.7, 8.9로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18.6p, 4.6p, 20.5p 하락하여 부정적 평가가 확대
 - 지난 분기에 회복됐던 전문가평가가 연평도 도발로 인해 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2010. 1분기)와 정부의 5.24 조치 수준(2010. 2분기)으로 다시 크게 악화
 -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의 전문가평가가 가장 큰 폭 하락하고 낮은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이들이 현 상황을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
 - 중도 성향은 소폭 하락했으나 보수와 진보 성향 전문가들은 모두 대폭 하락
 - 한편, 다음 분기 전망에 대한 기대지수 역시, 중도 및 보수 성향이 진보 성향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기대지수는 현재 평가지수보다 모두 높게 나타남
 - 기대지수의 증가폭에 있어서, 진보 성향의 기대지수 변동(10.0p 감소)이 중도(10.2p 상승) 및 보수(1.3p 하락) 성향보다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냄
 - 이는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은 연평도 도발이란 추가적 안보 위협 발생과 남북 양측의 강경 맞대응으로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등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데 기인
 - 다만, 기대지수는 성향에 관계없이 현재의 평가지수보다 월등이 높아, 최근 북한의 대남 대화 제의와 미중 등 주변국들의 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 >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기대지수	HRI 평화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0 4분기	15.0 (▽18.6)	45.4 (▽1.3)	25.7 (▽4.6)	51.0 (▲10.2)	8.9 (▽20.5)	28.7 (▽10.0)	15.4 (▽15.0)	36.5 (▽5.5)	25.0 (▽5.1)
'10 3분기	33.6 (▲20.6)	46.7 (▲15.7)	30.3 (▲20.8)	40.8 (▲18.4)	29.4 (▲18.6)	38.7 (▲9.3)	30.4 (▲19.5)	42.0 (▲15.4)	30.1 (▲7.5)
'10 2분기	13.0 (▽6.0)	31.0 (▽0.3)	9.5 (▽4.5)	22.4 (▽8.2)	10.8 (▽5.0)	29.4 (▲0.6)	10.9 (▽5.6)	26.6 (▽3.8)	22.6 (▽7.3)
'10. 1분기	19.0 (▽20.7)	31.3 (▽20.1)	15.0 (▽15.5)	30.6 (▽24.0)	15.8 (▽13.9)	28.8 (▽20.0)	16.5 (▽17.0)	30.4 (▽20.4)	29.9 (▽11.1)
'09. 4분기	39.7 (▽10.5)	51.4 (▽6.2)	30.5 (▽7.6)	54.6 (▲0.2)	29.7 (▽8.1)	46.8 (▽4.9)	33.5 (▽7.0)	50.8 (▽3.0)	41.0 (▲0.8)
'09. 3분기	50.2	57.6	38.1	54.4	37.8	51.7	40.5	53.8	40.2

2. 남북 관계 현안 설문조사

○ (2011년 대북정책 방향)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6자회담 재개와 연평도 사건을 별도 추진하는 ‘투-트랙 접근’이나 ‘무조건적인 조속한 관계 개선’을 주문

- 전체 63명의 전문가 중 약 70%가 향후 대북 정책 추진시 6자회담 재개와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분리 추진하는 투-트랙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
- 또한 6.5%는 ‘연평도 도발과는 관계없이 조속한 남북 관계 개선’을 주문
- 그러나 연평도 추가 도발로, ‘북한의 책임있는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강경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24.2%에 달함 (2010년 3분기 15.9%)

2011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비중
6자회담 재개와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별도 추진하는 투-트랙 접근	69.4%
북한의 책임있는 사과가 있기 전까지 강경 기조 유지	24.2%
연평도 도발과는 관계없이 조속히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	6.5%

○ (남북 경색 장기화의 한국 경제 영향) 장단기 영향에 대한 전체적인 견해가 절반씩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임

- 전체적으로는 ‘단기적 영향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영향이 심대할 것’이라는 응답자와 ‘단기적 영향은 있으나 중·장기적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란 응답자는 각각 46.8%씩 동일함
- 그러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은 ‘남북 경색이 단기와 중장기에 걸쳐 영향이 심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반면, 보수 성향은 ‘중장기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음

남북 경색 장기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종합	보수	중도	진보
단기적 영향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영향이 심대함	46.8%	26.1%	50.0%	73.3%
단기적 영향은 있으나 중·장기적 영향은 별로 없을 것	46.8%	65.2%	45.8%	20.2%
전혀 영향이 없음	6.5%	8.7%	4.2%	6.7%

○ (향후 6자회담 재개 전망)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상반기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전체 전문가 중 60% 이상이 올해 1분기나 상반기 내에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응답했으며, 하반기에 열릴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도 32.3%에 달함
- 이는 지난 연말에 있었던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회동 제의와 북한의 IAEA 핵사찰단 복귀 허용,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 등이 영향을 미친 듯

향후 6자회담 재개 전망	비중
올해 1분기 내 재개될 것	1.6%
올해 상반기 내에는 재개될 것	59.7%
올해 하반기 내에는 재개될 것	32.3%
올해 안에 재개되기는 힘들 것	6.5%

○ (북핵 해결 방안)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은 ‘6자회담 우선 재개’와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후의 북핵 협상’ 등을 바람직한 북핵 해결 방안으로 제시

- 전문가의 약 2/3는 ‘先 6자회담 재개, 後 북한 변화 유도’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북핵 해결책으로 제시
- 또한 ‘북한 핵연료봉의 해외 이전과 판매를 전제로 핵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협상을 제시한 비율도 23.0%에 달함
- 그러나 북한이 핵포기시까지 협상 불가하며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13.1%에 달함
- 성향별로는 중도와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은 ‘대화 우선 재개’ 응답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보수 성향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 마련과 핵포기시까지 협상 불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바람직한 북핵 해결 방안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일단 6자회담을 재개한 후, 북한의 구체적 태도 변화 유도	63.9%	47.8%	73.9%	73.3%
북한 핵연료봉 이전과 판매를 전제로 핵협상 재개	23.0%	30.9%	13.0%	26.7%
북한 핵포기시까지 협상불가 원칙 고수, 대북 제재 강화	13.1%	21.7%	13.0%	0.0%

○ (북핵 문제 해결 당사자 문제) 많은 전문가들이 남한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주변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인식

- 전체 전문가들의 36.1%가 남한이 한반도의 당사자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응답
- 그러나 북핵 문제는 남북간의 문제이자 국제적인 문제이므로 미국(24.6%)과 중국(21.3%)은 물론, 6자회담 틀 속(18.0%)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

북핵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국가	비중
한반도 사안인 만큼 남한이 적극적이어야 함	36.1%
북미 직접 회담 추진 등 미국이 나서야 함	24.6%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이 나서야 함	21.3%
6자들 속에서 공조를 강화해야 함	18.0%

○ (2011년 남북 관계 전망) 대화 국면 진전과 현재의 정체 상황 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화 국면 진전 가능성 전망이 다소 높음

- 전체 전문가의 절대 다수가 현재의 정체·경색 국면이 유지되거나(45.2%) 점차 대화 국면으로의 진전(48.4%)을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의 추가적 도발과 우리정부의 강경 대응 등으로 '국지적인 군사 충돌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소수 존재 (6.5%)

2011년 남북 관계 전망	비중
시간이 흐르면서 6자회담과 남북회담 재개 등 대화국면까지 진전	48.4%
남북 긴장 단기적 고조 가능성 있으나, 현 정체 상황 유지될 것	45.2%
남북 긴장 더욱 고조, 국지적 군사 충돌 발생 가능성	6.5%

○ (남북 관계 개선 방안) 정치·군사 분야에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화 재개 노력을, 경제 분야에서는 정경분리 원칙 견지를,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통한 상호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 정치·군사 분야의 경우,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의 대화 분위기 움직임을 적절히 활용하여, 남북 문제와 북핵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 할 것을 제안
 - 이는 북한의 대남 대화 제의 공세와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6자회담 개최 가능성 증대 등의 최근 분위기가 반영된 듯함
- 경제 및 인도적 지원 분야는 정치·군사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실용적 방안이므로, 이의 확대를 통한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의 필요성 역설로 해석

(1) (정치·군사 분야 과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대화 재개 노력을 비롯,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통한 북한 변화 유도 등 대북 '유화적' 태도와 '선이후난'(先易後難) 방식을 남북 관계 개선의 최선책으로 제시

- 남북 관계 전문가들의 약 70%는 '남북 당국간 회담의 정례화'(20.5%)와 '남북 정상회담 추진'(16.4%)을 비롯, '대중 외교 강화'(18.0%)와 '조속한 6자회담 재개'(15.6%) 등 대화 재개 방안에 우선 순위를 부여
 - 이는 앞서 전문가들이 2011년 대북 정책 방향과 북핵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6자회담의 분리 추진하는 '투-트랙' 접근 방법 추진 주장과 '先 6자회담 재개, 後 북한 변화 유도' 주장과 맥을 같이 함
 - 반면에, '한미 동맹을 통한 대북 압박 강화'는 4.9%에 불과

정치·군사 분야 남북 관계 개선 방안	비중
남북 당사자간 회담의 정례화	20.5%
대중 외교 강화를 통한 북한 변화 유도	18.0%
남북정상회담 개최 추진	16.4%
조속한 6자회담 재개 추진	15.6%
통일 준비를 위한 국론 결집을 통해 북한의 근본적 변화 유도	15.6%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압박 강화	9.0%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4.9%

- 특히,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쉬운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선이후난’(先易後難) 방식을 선호
 - 정부는 우선 상기의 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한 후, 중장기 과제인 ‘국론 결집을 통한 북한의 근본적 변화 유도’(15.6%)나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4.9%) 등도 시간을 두고 추진해나가자고 응답

(2) (경제·사회문화 분야 과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와 경협법·제도화 및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남북 교류협력 확대 등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

- 전문가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신뢰 회복을 남북 관계 개선의 주요 우선 과제로 지적
 - 특히, 쌀·비료·의약품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23.2%)가 다수를 차지
 - 그 다음으로 이산가족 상봉 추진(9.8%)와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전면적 재개(4.4%)도 주요한 대안으로 제시 주요
- 경제 분야 최우선 과제로는 경협법·제도화와 정경분리 원칙 적용을 제시
 - 전문가들은 4대 경협 합의서와 3통(통행·통관·통신) 등의 실질적 보장을 통한 남북경협의 안정성 확대를 지적
 - 특히, 전문가들은 정치·군사적인 남북 경색 요인들이 남북 경협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5.24 조치 해제(17.0%), 개성공단 활성화(15.1%)와 금강산 사업 재개(10.7%) 등의 정경분리 원칙 적용을 주요 대안이라고 응답

경제·사회문화·인도적 지원 분야 남북 관계 개선 방안	비중
쌀, 비료, 의약품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23.2%
법 제도화 추진으로 교류, 협력의 안정성 확대	19.7%
남북교역 재개와 방북 제한 철폐 등 5.24 조치 해제	17.0%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협 활성화	15.1%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10.7%
설맞이 등 이산가족 상봉 추진	9.8%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전면적 재개	4.4%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임
-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이며,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구성
 -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대지수'도 측정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영역의 '이벤트 지수' 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교류지수'로 구성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남북한의 전시 상태를,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¹⁾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상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우호적 협력 상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고조 상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전시·준전시 상태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달는 상태	20이하

1)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 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수들을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부록 2 > 교류지수 주요 변수

< 교류지수 주요 변수 구성 >

구분	중분류	변수
경 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 회 · 문 화 · 인 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 주: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3) 경제교류 협력지원은 협력기금의 경제분야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용자액의 합

< 부록 3 > 남북 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 (목적)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전문가 평가지수 산출을 위하여 지난 3개월 및 향후 3개월의 남북 관계 진단 및 전망

- (조사 시기) 2011년 1월 7일 ~ 1월 14일 (8일), 총 응답자 63명

2. 조사 내용

□ 남북 관계 분석 및 전망

1. 정치·군사 관계

1-1) 남북 당국자 간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5.8	26.1
2. 그렇지 않다	38.7	40.6
3. 보통이다	25.8	24.6
4. 그렇다	9.7	8.7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1-2)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1.0	20.3
2. 그렇지 않다	41.9	46.4
3. 보통이다	21.0	18.8
4. 그렇다	16.1	14.5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	100.0

1-3)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나아지고 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49.2	20.3
2. 그렇지 않다	46.0	44.9
3. 보통이다	4.8	24.6
4. 그렇다	0	10.1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	100.0

1-4) 북한의 내부 통치 체제가 안정화되고 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49.2	7.2
2. 그렇지 않다	41.3	27.5
3. 보통이다	3.2	33.3
4. 그렇다	6.3	30.4
5. 매우 그렇다	0	1.4
계	100	100.0

1-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간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41.3	20.3
2. 그렇지 않다	46.0	47.8
3. 보통이다	11.1	24.6
4. 그렇다	1.6	7.2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	100.0

1-6) (전망) 남북간 정치·군사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7.9	2.9
2. 그렇지 않다	55.6	37.7
3. 보통이다	25.4	36.2
4. 그렇다	11.1	20.3
5. 매우 그렇다	0	0
6. 잘 모르겠다	0	2.9
계	100	100.0

2. 경제적 관계

2-1)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42.9	21.7
2. 그렇지 않다	55.6	47.8
3. 보통이다	1.6	27.5
4. 그렇다	0	2.9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2)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9.7	0
2. 그렇지 않다	40.3	23.2
3. 보통이다	27.4	37.7
4. 그렇다	22.6	34.8
5. 매우 그렇다	0	4.3
계	100.0	100.0

2-3) 북한 경제의 개방이 점차 확대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50.8	15.9
2. 그렇지 않다	41.3	44.9
3. 보통이다	4.8	31.9
4. 그렇다	3.2	5.8
5. 매우 그렇다	0	0
6. 잘 모르겠다	0	1.4
계	100.0	100.0

2-4)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2.9	23.2
2. 그렇지 않다	54.8	40.6
3. 보통이다	17.7	31.9
4. 그렇다	14.5	2.
5. 매우 그렇다	0	0
6. 잘 모르겠다	0	1.4
계	100.0	100.0

2-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5.4	21.7
2. 그렇지 않다	54.0	49.3
3. 보통이다	15.9	24.6
4. 그렇다	4.8	4.3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6) (전망)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33.3	4.3
2. 그렇지 않다	46.0	37.7
3. 보통이다	17.5	37.7
4. 그렇다	3.2	17.4
5. 매우 그렇다	0	0
6. 잘 모르겠다	0	2.9
계	100.0	100.0

3.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

3-1)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문화, 체육 및 이산가족 상봉 등)가 활발해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42.9	13.0
2. 그렇지 않다	49.2	42.0
3. 보통이다	6.3	29.0
4. 그렇다	1.6	15.9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2)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높아졌다
(2분기 :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7.9	36.2
2. 그렇지 않다	52.4	36.2
3. 보통이다	28.6	27.5
4. 그렇다	11.1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3)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증대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44.4	11.6
2. 그렇지 않다	49.2	26.1
3. 보통이다	4.8	43.5
4. 그렇다	1.6	18.8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4)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65.1	11.6
2. 그렇지 않다	30.2	49.3
3. 보통이다	3.2	29.0
4. 그렇다	1.6	10.1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5) (전망)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49.2	2.9
2. 그렇지 않다	47.6	36.2
3. 보통이다	1.6	34.8
4. 그렇다	1.6	24.6
5. 매우 그렇다	0	0
6. 잘 모르겠다	0	1.4
계	100.0	100.0